



즉시 배포용: 2019년 9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DHR)에 고버뉴어의 학생 대상 혐오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시

"저는 구버뉴어 타운에서 10살짜리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녀에 대한 끔찍한 20분의 인종 차별 폭행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인 감시자가 동석한 학교 버스 내에서 동급생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사실은 해당 사건을 더욱 충격적이고 심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버스에 태울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신뢰에 대한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위반입니다.

최근 증오 범죄와 차별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여름 저는 학교 버스를 포함한 공립학교에서 차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뉴욕주 인권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인권국(DHR)에게 이 가혹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작하고, 해당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법률의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합니다. 저는 또한 뉴욕주 경찰 혐오 범죄 대책팀(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에 지역 당국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즉각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시합니다.

뉴욕에서 인종이나 종교에 기반하여 타인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어기고 짓밟는 것일 뿐 아니라 불법입니다. 우리는 증오가 이기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리칠 것이며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증오로부터 안전하게 지내도록 돕기 위해 계속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